# 근대불교 이끈 만암·용성 대종사 조명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한국불교를 이끈 선지식 만암 대종사와 백용성 대종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는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만암 종헌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만암 대종사의 수행, 교육사업 등 업적과 수행·사상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만암 대종사의 수증과 불교사상'을 통해 대종사의 불교·수행관과 사상적 면모를 살폈다. 금강 스님은 만암 대종사의 활동과 업적을 중생심에 기초한 자비행의 관점에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만암 대종사의 자비행을 △정화에서의 자비행 △선농일치에서의 자비행 △민족의식에서의 자비행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스님은 "정화에서의 자비행은 대처승과 그 가족들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며, 선농일치의 자비행은 기근에 허덕이는 마을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구제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과 고불총림 등에서의 자비행은 새로운 나라를 온전히 일구는 행복을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 스님은 만암 대종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만암문집〉 재발간 △만암 대종사 시(詩)세계 연구 △만암 대종사 사상 현대적 의미 발굴 등을 제언했다.

학술세미나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도 만암 대종사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20세기 한국불교사에서 만암 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노력으로 만암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김상영 前 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불교정화의 재인식(김광식 前 동국대 특임교수) △만암의 교육활동과 의의(황인규 동국대 교수) △만암대종사의 행장과 관계된 몇 가지 검토(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가 발표됐다.

### 백양사, 만암 대종사 조명 세미나

**만암 대종사 생애·사상 짚어**
**"〈만암문집〉 재발간" 제언도**
**"대종사 위상 재평가 기대"**


만암 대종사


백용성 선사

조계종 대각회 법안정사(주지 법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6월 25일 목동 법안정사 2층 관음전에서 백용성 선사 탄신 1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백용성 선사의 대각사상과 대각운동을 합한 조어(造語)인 '대각선'을 처음으로 조명하고, 이를 학계에 연구적 화두로 던지는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 대각사상硏 '대각선' 고찰 세미나

**선사 탄신 160주년 맞아 개최**
**보광 스님 '대각선' 화두 던져**
**"민중대각화사업, 대각선 화두"**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대각선 연구'를 통해 '대각'의 사상적 연원과 대각선 정립 및 전개, 실천을 백용성 선사의 생애·저술을 근간해 조명했다. 보광 스님에 따르면 백용성 선사가 '대각'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종로 대각사를 창건하면서부터다. 〈백용성 총서〉에만 654회가 등장하는 '대각'은 경론 상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고 부처님 자체를 뜻한다.

백용성 선사가 보여준 '대각관(大覺觀)'에 대해 보광 스님은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自覺覺他)'"임을 밝히며 "이를 위한 공동체가 대각교이고, 근본적인 사상이 대각사상이며, 이를 사회화한 것이 대각운동이다. 이러한 수행이 바로 대각선"이라고 규정했다.

'자각각타'를 요체로 한 대각선의 실천을 백용성 조사는 민족독립운동과 참선포교, 대각교 운동으로 보았다. 보광 스님은 "대각교 운동은 '대각'을 사회화한 '대각선'이다. 결국 '대각선'의 궁극적 화두는 '민중대각화사업'에 있다"며 "백용성 선사는 자각(自覺)과 각타(覺他)를 아우르는 대각선을 실천한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백용성 선사의 선사상 전반을 되짚는 학술논문들이 발표됐다. 허정선 동국대 철학박사는 '백용성의 참선포교'를,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용성선사의 법거량'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용성진종 선교관의 특징'을 발표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는 '대각회 자료DB구축의 성격과 전망'을,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은 '만일참선결사와 봉암사 결사의 비교'를 선보였다.

## '직지' 연구 야닉 교수, 한불문화상 수상

**주 프랑스 韓대사관 수여**
**진우 스님, 서신으로 축하**



야닉 브뤼느통 교수〈사진〉가 '직지'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프랑스에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6월 13일 야닉 브뤼느통 교수에게 '제21차 한불문화상'을 수여했다. 야닉 교수는 프랑스 파리 7대학 동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21~2년 조계종 사회부가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국고지원으로 진행한 '직지' 불어 번역에 매진한 바 있다.

프랑스 소재 한국학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야닉 교수는 고려역사(10~14세기), 중세한국 국가와 불교의 관계, 한국 풍수역사, 한국 중세 금석학(비문) 등을 연구해왔다. '고려의 풍수지리학승려'를 주제로 200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향적 스님의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2014)'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2020)', 한국불교(2016) 등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하서신을 통해 야닉 교수의 수상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교수님의 수년에 걸친 연구와 번역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인 쇄본으로만 알려져 있던 '직지'의 불교적 가치가 프랑스어권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면서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문화와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불문화상(Prix Culturel France-Coree)은 1999년 권인혁 전 주불한국 대사에 의해 창설됐다. 프랑스 내 한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킨 개인이나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정명훈 지휘자, 백건우 피아니스트, 나윤선 재즈 가수, 안은미 안무가, 낭트 '한국의 봄' 축제 협회, 파리한국영화제 등이 있다.

임은호 기자

## 기록만 있던 '미탄사지' 사역 확인

**문화재청·경주시, 6월 30일 발굴현장서 설명회**

**경주 미탄사 사역·배치 확인**
**왕경 사찰과 다른 가람 배치**


경주 미탄사지와 삼층석탑 전경.

기록으로만 전승된 사찰인 경주 미탄사의 사역과 배치가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6월 30일 경주시 구황동 소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경주 황룡사지 남쪽에 위치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탄사는 그간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실존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 2014년 문화재청 중요 폐사지 시·발굴조사 사업에서 '미탄(味呑)'명 기와가 출토되면서 삼층석탑과 함께 사찰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미탄사의 사역(사찰이 차지하는 구역)과 배치가 확인됐다.

발굴조사 결과 '미탄사'는 8세기 후반 기존 황룡사지 남쪽 신라방 내 가옥에서 사찰로 전환돼 13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역은 신라왕경 방리제 안에서 방내도로로 구획된 곳에 세로 약 160m, 가로 약 75m, 면적 1만2000㎡로, 삼층석탑과 금당지를 비롯한 여러 동의 부속 건물과 원지(園池, 정원 안에 있는 연못), 담장, 우물, 배수로 등이 갖춰져 있었다.

사찰 영역은 삼층석탑과 금당으로 구성된 예불 공간,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방과 부속 건물 등으로 구성된 생활공간, 그리고 원지 일원의 후원공간으로 나눠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탄사는 추정 문지-탑-금당이 남북으로 배치되었는데 금당이 탑의 중심축선상에 벗어나 있어 전형적인 신라왕경 내 사찰과는 다른 형태의 가람배치를 보인다. 이는 8세기 이후 신라왕경의 도시가람으로 지어진 귀족층의 원찰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왕경 사찰 연구에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원지(약 33×28m, 약 900㎡)는 금당지 북서쪽에 위치하며, 동쪽 남북대로(大路)의 배수로에서 원지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입수구를 갖추었다. 원지는 직선과 곡선호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호안의 동벽과 북벽은 강돌을 여러 단 쌓아 직선호안으로 만들었고 서벽과 남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곡선호안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형태의 미탄사 원지는 동궁과 월지, 구황동 원지, 용강동 원지와 함께 신라왕경 내 원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면서 "기존 나말여초(신라 말기~고려 초기) 석탑으로 여겨지던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의 하부 지정층을 조사한 결과 석탑이 8세기 후반에 건립되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前 범어사 강주 지오 스님 원적

**법납 54년 세수 77세로**



前 범어사 강주 정혜당(定慧堂) 지오(至晤) 스님〈사진〉이 6월 27일 오후 1시 32분 범어사 서지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54년, 세수77세. 영결식은 7월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다비식은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지오 스님은 1970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1973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중앙교육원 교육수료를 했다. 동국대 동국역경원에서 수학하여 역경사과정을 수료, 1979년 동화사에서 유식학을 공부했다. 스님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 해인사 및 범어사 선원에서 17안거를 성만했다. 1996년 중국 구화산, 그 이듬해 1997년에는 중국 오대산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2004부터 2008년까지 범어사 율원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2012년부터 범어사 교수사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가르쳤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 2023 불교명상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 급수 | 1급 | 2급 |
|---|---|---|
| 강의 기간 | -교육 8월 26일~12월 16일(16회) | -교육 9월 7일~12월 14일(총 15회)<br>-워크숍 12월 21일 (1회) |
| 강의 시간 | -매주 토요일 9:30~16:30<br>(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 교육 매주 목요일 10:00~17:00<br>(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br>-워크숍 목요일 9:00~21:00 |
| 대상 | -불교명상지도사 2급 수료자 |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
| 비고 | -교육 6회 대면 필참 | -교육 5회+워크숍 대면 필참<br>-수강료에 워크숍 비용 포함 |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모집마감** : 2023년 8월 22일(화) 17시

**수 강 비** : 108만원(카드 3회 분납 가능)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 접수
*E-mail : jabi3719@daum.net / fax : 02-737-8802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특 전**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인증과정
3. 교육비 할인 (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문의 T.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